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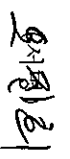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마련 지원	연구기관/책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 박사
부서/과제담당관	기획총괄과 / 오진희 과장	담당공무원	강수진 사무관
연구방식	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3. []자문형		
연구자 선정방법	1. []경쟁계약 2. [✓]수의계약		
연구기간	2020. 3. 17. ~ 2020. 12. 15. (9개월)		
연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진입과 직장 연건 개선, 주거 관련 안정된 삶의 연건 조성, 청년의 참여와 권한 부여 등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 ● 고령사회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령층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득보장,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정책, 예방 중심 보건의료, 고령친화 및 노후준비 문화 조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 ● 지역사회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접근성을 고려한 산업클러스터 및 입지전략 수립, 지역 유형별로 차별화된 산업 및 일자리 정책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구감소 대응정책 필요 		
평가결과	<p>이 연구는 보고서 제목이 말해주듯이,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연구로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과제설정과 이를 위한 적절한 논거 제시 및 이에 근거한 영역별 구체화된 정책과제 도출이 핵심 과제로 볼 수 있음.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양한 연구진들과의 협업을 통해 매우 풍성한 논거들과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구성방식과 해당 영역별 내용 역시 연구목적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p> <p>보고서의 가독성도 좋은 편이며, 특히 제안된 정책영역별 근거 자료 역시 다양하고 최신의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어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한 국사회상황은 물론 관련 정책의 국제동향 파악도 가능하다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음. 2005년 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난 15여년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기계획이 5년 마다 발표되어 왔음. 그럼에도 초저출산추세의 반등세가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제4차기본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 것이 사실임.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그간 추진되어 왔던</p>		

정책과의 연계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드러내면서도 제 3차기본계획 보완판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추진된 만큼, 그것의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임. 이 연구는 그러한 세간의 기대에 부응하듯, 일차적으로 인구구조 변화과정을 꼼꼼히 분석하고, 그것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노동, 교육, 보건 의료,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보험과 주택 등 다양한 영역을 망라적으로 살펴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구동태변화와 그 파급효과를 반영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방향과 정책영역을 설정하고 있음.

이 연구는 연구목적과 과제내용의 특성상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보다는 그간의 정책효과나 다양한 담론들의 메타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긴요성, 시급성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논거들과 경험적 자료들을 활용하여 제4차 기본계획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논의 방식은 매우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음. 제안된 정책 영역과 해당 영역별 과제내용 역시 범부처의 실득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분 수정과 보완은 불가피 하겠지만, 4차 기본계획의 기초와 내용으로 정리 발표될 수 있을 만큼 논리적이며 구체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정책활용성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함. 또한 4차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이 연구는 그 이전 논의와 달리 지역의 심각한 인구불균형의 문제 해소를 위한 논의의 장이 제공되고 있음으로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위기 문제 해결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러한 지역문제의 논의를 저출산·고령화와 병렬적으로 다루고 있음으로 해서 논의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적어도 지역이라는 공간 속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인한 삶의 변화와 문제 대비 정책의 우선순위가 보다 입체적으로 제시되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전체 보고서가 1200여 페이지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임. 그럼에도 마지막 장에서 2~11장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면서, 이를 시간과 공간, 예를 들면 시·간은 5개년으로 하되, 공간은 12개 시도 등으로 구체화하기 보다는 일정 수준이하의 인구조별지역 및 초고령지역으로 단순화하고, 그러한 시·공간의 좌표면에서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보다 세심하게 제시해주는 노력이 있었다라면 이 보고서의 활용도는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없지 않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김혜영	 (서명)	오진희	
평가 보고회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